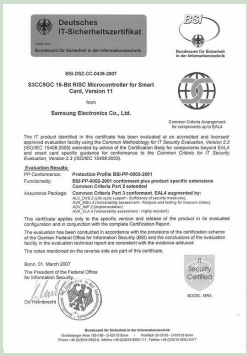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여권 시대 앞당긴다

삼성전자가 전자여권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카드 IC 제품에 대한 국제 보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 외 전자여권용 스마트카드 사업에 본격 진출할 채비를 마쳤다.

스마트카드 형태의 전자여권은 각종 개인 정보가 저장된 반도체 칩(IC)을 내장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콤비타입(접촉 · 비접촉) 스마트카드 IC 2 종에 대해 정보보호 분야의 국제 공통평가기준인 CC(Common Criteria) 보안 인증 'EAL 4+(Evaluation Assurance Level)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했다.


Deutsches IT-Sicherheitszertifikat

BSI-DSZ-CC-0438-2007

S3CC9BC 16-Bit RISC Microcontroller for Smart Card, Version 11

from

Samsung Electronics Co., Ltd.

CC 인증은 1999년 채택된 국제적 정보 보호 제품 평가 기준으로 전자 여권 · 전자주민증 · 전자운전면허증 等 각종 전자 IC카드의 보안 관련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EAL 등급은 높을수록 제품 보안 기능이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국제 민간항공 기구(ICAO)에 따르면 전자여권 等 엄격한 보안 사항이 요구되는 제품은 EAL 4+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인증된 144KB 스마트카드 IC는 업계 최대 용량으로 72KB 제품과 함께 두 가지 용량으로 제공되며, 전자여권의 생체인식 시스템에 필요한 안면, 지문, 홍채, 유전자 등 다양한 생체 정보 저장이 용이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ID · 정보보호 및 금융 분야 스마트카드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LG전자, 스마트폰 시장 본격 공략

LG전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세련된 디자인에 풀브라우징 기능을 적용한 HSDPA 스마트폰 '조이(JoY, 모델명:LG-KS10)'를 이탈리아에 출시한다.
이 제품은 심비안(Symbian) 운영체제를 탑재했으며 '풀브라우징(Full Browsing)' 기능을 지원해 PC처럼 자유롭게 모든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전체화면 보기, 화면 확대하기, 즐겨찾기 등의 기능으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구글 서치', '지메일' '구글맵' 등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도 만끽할 수 있다.

HSDPA 스마트폰인 '조이'는 WCDMA 폰보다 약 5배 정도 빠른 속도를 구현, 동영상, 음악파일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등을 더욱 빠르게 즐길 수 있다.

2.4인치 대형 LCD 화면을 장착했으며 200만 화소 카메라, 영상 통화 기능, 블루투스, MP3 플레이어, 외장메모리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이탈리아 출시를 시작으로 연내 유럽전역 및 동남 아시아,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파브(PAVV)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행사 열어	2007/05/06
2	삼성전자 반도체 임직원, 사회봉사 총 출동	2007/05/04
3	삼성전자, MP3 T9 던전앤파이터 스페셜 에디션 출시	2007/05/02
4	삼성전자-YMCA, 제22회 초록동요제 개최	2007/04/29
5	삼성전자, 美 국방용 와이브로 시험서비스 계약	2007/04/26
6	세계서 가장 얇은 5.9mm 바형 울트라에디션5.9 출시	2007/04/25
7	삼성전자 · MS, 상호 특허 사용 계약 체결	2007/04/19
8	인천공항철도역사에 멀티미디어 체험관 오픈	2007/04/18
9	삼성전자, KIS 2007서 첨단 IT제품 공개	2007/04/18
10	캄보디아 왕궁에 63"PDP-TV와 3대와 홈시어터 설치	2007/04/1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호주서 '최고 가전 기업'	2007/05/07
2	LG전자, 3G 휴대폰 시장서도 샤인 돌풍 일으킨다	2007/05/03
3	LG전자, 고품격 LCD TV 'XCANVAS 퀴담' 출시	2007/04/30
4	LG전자, 세계 최초 '중국 3.5G 폰' 기술 개발	2007/04/26
5	LG전자, 스마트폰 시장 본격 공략	2007/04/25
6	LG전자/MBC, 세계 최초 '감성 3D 방송' 개발	2007/04/24
7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729억 원	2007/04/23
8	LG전자, '슈퍼 블루' 플레이어 국내 첫 공개	2007/04/20
9	LG전자, 북미 3G 시장 석권	2007/04/18
10	LG전자, 중동 사막서 마라톤 마케팅	2007/04/17

LG전자 안승권 MC사업본부장은 "PC와 유사한 사용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며, "LG전자는 고객의 요청에 부합하는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덕전자, 저항기 내장형 PCB 국내 첫 양산

대덕전자는 칩 저항을 사용하지 않고도 탄소 재료를 이용해 기판자체에 저항 기능을 구현한 메모리 모듈용 임베디드 PCB 양산에 성공, 최근 납품을 시작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임베디드 PCB란 저항이나 커패시터 등 수동부품과 집적회로(IC) 등을 심는 대신 그 기능을 기판 자체에 내장해 면적과 신호간섭을 줄이고 제거하는 차세대 제품이다. 일반 PCB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표면 실장을 생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저항기를 심어야 할 위치에 다른 부품을 배치할 수 있어 기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품에는 100여개의 저항이 내장됐으며 저항값 오차는 ±5% 이내다.

커패시터를 내장한 임베디드 PCB는 대덕전자를 비롯, LG전자 · 이수페타시스 등이 양산을 해왔지만 저항을 내장한 제품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이진호 대덕전자 고문은 "이번 양산을 계기로 임베디드 PCB 기술 분야에서 더욱 앞서갈 수 있게 됐다"며 "2분기 이후부터 임베디드 PCB 수요가 확대돼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세계 임베디드 PCB 시장규모는 지난해 3000억원 정도였으나 오는 2010년에는 2조7500억원 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 AM OLED 증설 착수

삼성SDI가 시험 가동중인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생산 라인의 증설 투자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증설 투자가 일반적으로 양산이 시작된 뒤 이뤄지는 점을 들어 삼성SDI의 AM OLED라인의 양산체제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장비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300억원 안팎의 AM OLED 증착장비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고 국내외 장비업체와 가격협상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삼성SDI AM OLED 생산라인에는 일본 업체가 공급한 4세대 증착장비 2대가 가동중"이라며 "1대가 추가로 증설되면 생산량이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3900억원을 투입, 업계 최초로 AM OLED 전용 양산라인을 구축했으며, 올 상반기부터 2.4인치, 2.6인치 등 모바일기기용 AM OLED를 월 100만개 이상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이에 앞서 시범 생산한 AM OLED를 국내 MP3업체 레인콤과 일본 휴대폰업체 교세라에 공급중이다.

삼성SDI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양산은 현재 막바지 세부 사양(스펙) 조정이 한창인 메이저 휴대폰업체들의 물량 공급이 조만간 본격화되면 가능할 것"이라며 "증착장비 증설은 대규모 물량 공급시 공정 시간(리드타임)이 상대적으로 긴 증착 공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증착장비 신규 구매를 포함해 올해 AM OLED 생산라인 증설 투자에 총 1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LG이노텍, 고객가치 창출 혁신경영 추진

종합부품업체인 LG이노텍은 지난 4월 26일 올 초부터 고객인 세트업체들의 부품 단가인하 요구가 극심해지는 데다 대외 경기여건도 매우 느린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조치로 혁신경영 체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우선 각 사업 그룹장이 매주 화요일 광주 공장에 모여 하루동안 위너스데이 행사를 갖는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의 요구를 점검하고, 이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룹장들은 다음날 아침 해당 직원들에게 주요 논의 결과를 전파하고 주간 단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어느 해보다 단가인하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어 관련 사업부를 벗어나 전사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부품업체 매출 구조가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순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균형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영호 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고

객이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줘야 한다"며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활동과 가치 제안형 R&D 활동이 고객별 가치 창출로 연결돼 궁극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탈디바이스, 중 · 일과 양해각서 체결

디지탈디바이스가 일본 덴켄, 중국 란지엔그룹(Lanjian Group)과 손잡고 중국 내 '친환경사업'에 진출한다.

디지탈디바이스는 5월 2일 덴켄, 란지엔그룹과 수처리플랜트 사업을 위한 한중일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디지탈디바이스는 "일본 덴켄과 당사의 기술력 및 제조능력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중인 환경프로젝트에 반영구적 정수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통해 초년도 약 1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덴켄과 연간 300억원 규모의 낙뢰보호장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디지탈디바이스는 중국 내 무절제한 산업용 및 공업용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목적으로 현지 정부가 추진중인 반영구적 정수플랜트 사업을 비롯해 아시아시장 전체의 친환경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라믹 수처리기술을 접목한 반영구적 정수플랜트로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며 "덴켄과 함께 아시아 친환경시장 선두주자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택계열, 멕시코 시장에 슬림 돌풍 일으킨다

지난해 멕시코 휴대폰 시장에 '미니&슬림' 바람을 일으켰던 팬택이 슬림 스타일의 디자인 명품폰을 출시해 화제다.

팬택계열(www.pantech.co.kr)은 멕시코 최대 이통사 텔셀(TELCEL)에 2007년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07) 수상 제품인 슬림폰 '팬택 S100'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S100'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린 입체감 있는 슬림 디자인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작품. 팬택계열은 2007년 멕시코 시장 첫 신제품으로 국제적으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모델을 선보임으로써 디자인 선도 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S100'의 가장 큰 특징은 두께 11.9mm의 바(Bar)타입 슬림 곡선 디자인. 초슬림 컨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립(grip)감을 높이기 위해, 모서리를 각지지 않게 둥글게 처리하고 제품 앞면을 볼록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얇아도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맛'을 살려냈다.

또 이 제품은 음악을 좋아하는 중남미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게 MP3플레이어를 탑재했으며, 4배 디지털줌 카메라, 블루투스, 포토/비디오 콜러 I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도 두루 갖췄다. 특히 항공기 내에서 휴대폰이 꺼져있어도 에티켓을 지키며 MP3, 카메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플라이트(Flight) 모드를 지원하는 등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섬세히 배려했다.

가온미디어, 성장동력 든든

지난 4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가온미디어는 단기급등 피로감으로 전일대비 1.42% 내린 1만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 1/4분기 실적 호조세와 해외 신흥시장 수요확대가 견조한 주가흐름을 도왔다. 특히 지난 주말 두바이 국제자유무역지대에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헝가리공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해외법인 설립과 생산공장 확보도 긍정적이다.

또 루마니아 최대 위성방송사업자 붐(Boom)TV와 64억원 규모의 디지털셋톱박스 공급계약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엔 포르투갈 케이블방송사업자 까보비아소(Caboviaso)와 맺은 2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도 향후 수익성 개선폭을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이날 공시를 통해 발표된 가온미디어의 올 1 ·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370.6% 증가한 33억3200만원이고 매출액 증가율도 100%를 웃돌았다.

NH투자증권은 가온미디어가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확산에 따른 매출증가로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동시장에서 차세대 하이엔드 제품 판매를 통해 연간 200억원 규모 이상의 신규매출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비티씨, 제우스 '불량률 0%' 선언

비티씨정보통신이 LCD 모니터 프리미엄 브랜드 '제우스' 모든 제품에 대해 '불량률 0%'를 선언한다고 지난 3월 25일 밝

혔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LCD모니터 제품은 제조단위별 샘플링 검사를 통해 불량품을 가려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티씨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섭씨 45° 이상의 고온 에이징(가혹환경테스트) 설비를 갖추고 전제품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수원 공장 에이징 라인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샘플링이 아닌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개선했다.

회사측은 이번 '불량률 0%' 선언으로 품질에 민감한 대형 LCD모니터 시장에서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시장에서의 판매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기 비티씨정보통신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시설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사전 서비스를 강화해 고객만족은 물론, 사후서비스 비용의 10% 투자로 높은 효과를 얻는 비용 효율성이 있다"며 "45° 이상 고온에서의 에이징 라인을 갖춤으로써 근본적인 품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드콤, 일본에 DMB단말기 수출

케드콤은 지난 2월 13일 일본 지상파 DMB방송인 '1-seg' 서비스를 위한 차량용 DMB 단말기를 셀리지온과의 협력해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계약은 1년간 약 77억4000만원(800만달러) 규모로 일본내 가전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출 제품(모델명 DT-1000AV)은 7인치 LCD를 채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또 동시에 2개 화면 시청이 가능한 오버레이 기능과 FM 주파수를 통해 차량용 스피커를 이용하는 FM-TX(Frequency Modulation Transfer) 기능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 4월부터 시행중인 일본의 '1-seg' 서비스는 한국의 지상파DMB와 비슷한 서비스로,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무료로 방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디보스, 대구성서에 직영할인매장 오픈

중소 LCD TV 전문업체인 디보스는 대구 성서 첨단산업단지 본사에 디보스 직영할인매장을 지난 3월 21일 오픈했다.

총 60평 규모의 이곳 할인매장에는 가정용 LCD TV 전 제품과 디보스(Diboss) Daum go TV (IPTV), 세계 최초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인 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등 모든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이번 할인매장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통과정 없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업체 측은 밝혔다. 매장 내에는 구매상담코너를 마련해 제품설명에서 구매,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호텔과 병원 등 상업용 시장에서 잇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디보스는 이번 할인매장 오픈을 계기로 내수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LG엔시스, UTM 국정원 CC인증 획득

LG엔시스는 통합위협관리(UTM) 장비 '세이프존 IPS-U'가 국정원의 CC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4월 5일 밝혔다.

세이프존IPS-U는 다양한 보안기능을 복합적으로 탑재해 기존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은 물론 방화벽, 메일필터링, 유해사이트 차단,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까지 한 대의 장비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개별 솔루션을 무력하게 하는 혼합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보안관리를 위한 자원 및 총소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장종화 LG엔시스 개발부문장은 "이번 CC 인증 획득으로 고객들은 국제기준의 경쟁력을 갖춘 높은 품질의 제품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로 미국 · 일본 등 해외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기, KAIST와 산 · 학협력 협약 체결

삼성전기와 KAIST는 4월 10일, 상호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 · 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력전자, 패키징(Packaging)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로써 삼성전기와 KAIST는 2005년 설립한 무선기술 연구센터를 포함해 3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이번 산 · 학협력으로 삼성전기와 KAIST는 차세대 기술력 확보 외에 연구원 재교육 및 학생들의 산업현장 체험을 통해 기업에서 즉시 실무가 가능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